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Value Chain(GVC) Insight



금주의 GVC Insight



최신 GVC 해외 이슈

【IRA, 미국·EU】 바이든 대통령, 유럽산 전기차 IRA 보조금 수혜 가능성 시사

【코로나, 중국】 中 시진핑 주석 제로코로나 방역 완화 시사, 봉쇄 및 일부 규제 완화 확인

【ETS, EU】 유럽 의회 및 EU 이사회, 해상운송 섹터의 ETS(배출권거래제도) 편입 합의

【공급망 실사, EU】 EU 이사회,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안) 관련 입장 확정

【주석, 인도네시아】 인니, 내년 주석 수출 금지 전망, 광산 업체는 연기 요구

【공급망, 일본·중국】 일본기업의 탈중국 공급망 구축 추세 본격화



GVC 뉴스 더하기

- ① 12.5일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시행 동향
- ②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GVC 기초상식

전력도매가격(SMP)



GVC 돌보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주요 결과



GVC 전문가

“한국무역 재도약을 위한 차세대 성장 로드맵 구축”
- 한국무역협회 강내영, 양지원, 안병선, 김문선, 편명선



더 찾아보기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GVC 소식통

- ① 공급망 관련 세미나 및 지원 사업 안내
- ② 기업들을 위한 물류 지원 사업 안내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최신 GVC 해외 이슈

■ [IRA, 미국·EU] 바이든 대통령, 유럽산 전기차 IRA 보조금 수혜 가능성 시사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12.1일(목) 유럽산 자동차에 대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전기차 보조금 수혜 가능성 언급
 - 1월 IRA 법에 따른 새로운 전기차 보조금제도 시행을 앞두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IRA 규정 면제 요구
 -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미국에 협력하는 국가를 제외할 의도가 없었으며, 미국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나 유럽의 희생을 통해 이를 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 또한, IRA 법 규정 일부 조정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및 기업에 대해 일부 면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IRA 규정 면제 가능성 시사
- 영국 정상은 합의 내용의 세부적 사항을 실무 차원에서 추가 협의하고 EU 측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할 것임을 시사
 - 다만, 실무적 차원에서 미국이 EU의 우려를 해소할 근본적인 해법을 제안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며, IRA 법 일부 규정 개정을 위해 필요한 미국 의회 승인 절차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
- 12.5일 미국과 EU는 무역기술위원회(TTC) 이후 공동 성명을 통해 “IRA 관련 전담 태스크포스의 업무를 살피고, 초기적(preliminary) 진전이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설명
 - 구체적 해법은 도출하지 못했으나 EU를 필두로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들이 금년내 미국의 IRA의 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바,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됨
- 한편, 12.2일 중국 상무부 수제팅 대변인은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중국 대표단이 미국 IRA가 WTO 규정 위반이라는 점을 설명했다며 “국제 무역·투자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을 파괴한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설명
 - 12.4일 로이터통신은 유럽의회 베르트 랑게 국제통상위원장이 “IRA 법안은 이미 통과되었기 때문에 많이 바뀔 것 같지는 않다. EU가 IRA를 WTO에 제소하면 해당 법안이 EU 규칙과 양립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고 보도

출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22.12.2), 서울경제(22.12.6), 조선비즈(22.12.4) 등 언론보도 종합

■ [코로나, 중국] 中 시진핑 주석 제로코로나 방역 완화 시사, 봉쇄 및 일부 규제 완화 확인

- 12.2일 AFP통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2.1일 개최된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과의 정상회담 때 ‘덜 치명적인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는 EU 관료 발언을 인용하여 '제로 코로나' 정책의 완화를 시사했다고 보도. 중국의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은 명확한 흐름이 된 듯한 양상
 - 11.24일 코로나 봉쇄 탓에 신장 우루무치 아파트 화재가 제때 진화되지 못하여 발생한 참사 관련 중국 전역 시위 이후, 11.30일과 12.1일 방역 실무 총책임자 쑤춘란 부총리의 좌담회 관련 보도문에서 중국이 자랑해 온 방역 정책 명칭인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動態清零)'라는 표현이 제외되기도 했음
- 베이징, 상하이, 톈진, 선전, 청두, 다롄 등 10여개 주요 도시들이 앞다퉀 방역 완화책을 내놓음
 - (상하이) 12.5일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야외 공원, 관광지 등 입장을 위해 필요했던 48시간 음성 검사 결과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기로 함

- (선전) 12.3일 성명을 통해 버스, 지하철, 택시 등 시내 교통수단 이용 및 약국, 공원, 야외 관광지 입장시 PCR 음성 증명서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밝힘. 다만 체크인시 계속 장소 코드를 스캔하고 녹색 건강 코드를 제시해야 하며, 농산물 시장 방문시에는 PCR 검사 증명서 필요
 - (광저우) 약국에 대한 검사 결과 요구 사항 종료
 - (청두) 대중교통 이용시 PCR 음성 증명서 제출 불요
 - (베이징) 12.5일부 버스와 지하철 탑승시 48시간 PCR 음성 결과 증명서 불요
 - (톈진) 12.2일부 지하철 탑승시 음성 결과 증명서 불요
 - (산둥성) 12.4일부 도착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실시해 온 PCR 검사 폐지, 공공장소 출입 및 대중교통 이용시 PCR 검사 결과 불요
 - (항저우) 상시적인 전수 PCR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원하는 사람만 검사를 받도록 정책 변경
- 한편 12.5일 CNBC 등의 보도에 따르면 제로 코로나 정책에 지친 애플이 對中의존도를 대폭 줄이는 脫중국 계획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시장 분석가 다니엘 아이브스는 “중국의 코로나19 정책이 애플 공급망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공급망 변화에 주목할 필요성 피력
- 애플의 공급망 다변화 계획 착수는 정저우 폭스콘 공장의 잇따른 인력 이탈 및 시위 사태 때문으로 알려진 바, 생산 차질로 동 공장의 금년 아이폰 생산 목표는 9,000만 → 8,400만대로 감소한 상황임
 - * 정저우 폭스콘 공장은 약 30만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아이폰 최대 생산기지로, 아이폰 14프로와 아이폰 14프로맥스 등 전세계에 공급되는 아이폰의 85%가 이곳에서 생산
 - 애플은 폭스콘에 대한 의존도도 줄이기로 한 바, 폭스콘이 '20년 중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한 비율만 3.9%에 달하는 만큼 애플의 공급망 조정은 중국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애플 기술팀이 인도·베트남의 부품 제조업체들과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지 않는 한 독보적인 중국의 위상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존재. 이는 단순 부품 조립 수준으로는 인도·베트남 생산 공장이 중국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
 - 아울러 애플의 공급망 다변화 계획에 세계 경기 둔화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 경기 침체와 애플의 고용 둔화 속에서 새로운 제조기지를 단기간에 구축하기는 어려우며, 매년 자사 제품의 新모델을 중국 제조기지에서도 출시해 온 상황에서 조속한 공급망 교체도 곤란한 상황임

출처: 연합뉴스, 뉴시스, CNBC(22.12.5), WSJ, MBN(22.12.3) 등 언론보도 KOTRA 중국지역본부 종합

■ 【ETS, EU】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해상운송 섹터의 ETS(배출권거래제도) 편입 합의

- 11.29일 EU ETS 개편에 관한 3자 협상(trilogue)에서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해상운송 섹터의 EU 배출권거래제도(EU ETS) 편입에 최종 합의
 - 해상운송의 ETS 편입으로 EU 역내 운항 해상운송의 경우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100%, EU를 입출항하는 국제 해운의 경우 50%에 대해 ETS 배출권을 구매해야 함
 - 다만, 배출권 구매는 2025년 배출량의 40%, 2026년 70%, 2027년 100% 등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수치는 추가로 조정될 수 있음
- 배출권 구매는 5,000톤 이상 선박에 의무화되며, 배출권 구매를 회피하기 위해 4,999톤 선박이 보편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행위는 적용 대상 선박의 범위를 향후 재검토할 예정
- 한편, 해상운송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 규정과의 충돌 여부와 관련하여 EU는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을 지적
 - 국제기구의 노력이 미진할 경우 EU가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ETS 편입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

출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22.12.1)

■ [공급망 실사, EU] EU 이사회,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안) 관련 입장 확정

- EU 이사회는 12.1일(목)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안) 관련한 입장 확정
 - EU 이사회는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은행 등 금융업을 실사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금융업 실사 의무화 여부를 각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
 - 또한, 실사대상 범위도 EU 집행위 원안의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에서 제품 생산 이후 단계인 다운스트림을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기업 경영진의 실사 관련 책임도 원안보다 크게 낮춘 것으로 알려짐
- EU 이사회가 지침안에 대한 견해를 확정함에 따라, 내년 5월경 유럽의회가 관련 입장을 확정하면,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와 3자 협상을 통해 최종 법안을 확정할 예정

출처: 한국무역협회 브리핑지부(22.12.1)

■ [주석, 인도네시아] 인니, 내년 주석 수출 금지 전망, 광산 업체는 연기 요구

- 세계 최대 주석 수출국인 인도네시아가 '23년에는 주석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하자 인도네시아 주석 업체들은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정책 철회를 요구. 이에 에너지 광물자원부는 국내 가공 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계산하고 있다며 수출 금지 개시일은 미정이라 밝힘
 - 인도네시아 주석 수출기업협회 회장은 "수출금지 시행시 정부는 당장 연 1조 1,700억 루피아(약 1천억 원)의 국세 수입을 잃게 된다"며 정부의 규제를 지지하지만 하루 산업을 발전시킬 시간이 필요함을 강조
- 인도네시아 주석 매장량은 약 80만톤으로 중국(110만)에 이어 세계 2위이지만, 국내에서 대부분을 소비하는 중국과 다르게 제련이나 정련 등 가공 산업 발전이 미흡하여 생산량의 98%를 수출하고 있으며, 오히려 주석선·주석박과 같은 최종 생산품은 수입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짐
-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주석을 국내에서 가공한 뒤 부가가치가 높은 최종 제품 형태로 수출하기 위해 수출세 부과 등 규제 정책을 펼쳤으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결국 내년에는 주석도 니켈처럼 원자재 형태의 수출을 금지하는 극단적 정책을 도입하기로 한 상태로 평가됨

출처: 연합뉴스(22.11.29) 등 언론보도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종합

■ [공급망, 일본·중국] 일본기업의 탈중국 공급망 구축 추세 본격화

- 12.2일 일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11월 중순 일본 국내 제조업체 79개사가 응답한 중국 공급망 관련 설문조사에서 기업들의 50%가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응답(업종별로 기계 60%, 자동차·화학 57%, 전기 55%). 미·중 대립 격화, 대만 유사시 우려 및 中 제로 코로나 정책 등 리스크를 고려하여 일본 기업들은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 구축을 본격화하기 시작함
 - 해외 생산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조달 비율을 낮추겠다(53%), 중국으로부터의 부품 조달 리스크가 6개월 전 대비 높아졌다(78%)는 답변이 두드러졌으며, 그 이유로는 '대만 유사시 우려'(80%)가 복수응답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로 코로나' 정책 우려 역시 67%에 달함
 - 중국으로부터의 '현재 조달 비율은 5~20% 미만'이 가장 많은 34%를 차지했는데 '5년 후 조달 비율 5~20% 예측'에는 28%로 답변 기업수가 감소. 반대로 '중국으로부터 조달 비율 5% 미만'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5년 후에는 현재 22% 대비 11%p 증가해 33%로 나타남
- 중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조달처는 86%(복수응답)의 기업이 일본을 꼽았으며, 이는 태국(76%) 등 동남아시아를 상회함. 엔화 약세와 완만한 임금상승으로 국내(日) 생산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분석임

출처: 일본경제신문, 연합뉴스(22.12.2), 뉴시스(22.12.3) 등 언론보도 KOTRA 나고야무역관 종합



GVC 뉴스더하기 ① : 12.5일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시행 동향

◆ EU, G7 및 오스트레일리아가 12.5일부터 해상으로 수송되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 시행에 돌입했다. 주요 쟁점과 동향에 대해 살펴보자

■ G7·EU 등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합의

- G7·EU·오스트레일리아는 12.2일 성명을 통해 12.5일부터 '해상으로 수송되는 러시아산 원유가 배럴당 60달러를 넘을 경우 보험·운송 등의 서비스를 금지'하는 가격상한제 합의 발표
 - 대부분의 보험사가 EU나 영국에 있어 가격상한제에 참여하도록 요구받게 되는 상황 [워싱턴 포스트]
 - 참여국들은 가격 상한을 두 달에 한 번씩 재검토하되, 러시아산 원유의 시장가격보다 5% 낮게 유지 예정
- '원유 가격상한제'는 러시아의 수입 감소와 전 세계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지난 6월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상한가격과 세계 유가에 대한 영향 등 실질적 효과에 대한 의문 존재
 - EU 국가 중 러시아의 직접적인 안보 위협에 시달리는 폴란드·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 등도 합의 막판까지 '배럴당 30달러'를 상한가격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 우크라이나 역시 결정 자체는 반기면서도 상한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타격을 주기 힘들다고 우려
 - 러시아 에너지 수입 감소 목적을 달성하려면 러-우 전쟁 이후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늘려온 인도·중국 등의 움직임이 중요할 것이라는 평가
 - * 인도의 10월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은 110만 bpd(barrels per day)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 이는 지난해 평균 (약 10만 bpd) 대비 11배 증가한 수치이며, 중국은 1.2배(160만→190만 bpd) 상승 [IEA]
 - 한국 역시 러 원유 가격상한제 동참 용의 표명. 한국의 원유 수입 중 러産 비중은 지난해까지 5% 수준에서 '22.1~10월 2.3%로 감소하여 가격상한제 참여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 러시아, 상한제 적용국과 거래금지 법령 마련 및 그림자 선단(shadow fleet) 구성으로 대응 전망

- 러시아는 생산량 감소를 감수하더라도 가격 상한 적용 국가에는 석유를 팔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석유·석유제품 가격상한제 참여국·기업 등과 거래금지 법령을 마련 중인 것으로 보임 [로이터 통신]
 - (러시아 노박 부총리) 12.5일 가격상한제를 '자유무역의 원칙을 어기는 간섭 행위'라고 비판하며, 해당 수단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장 매커니즘을 연구 중이라고 밝힘
- 러시아는 원유 가격상한제 회피를 위해 유조선 100척 규모의 그림자 선단을 구성 [FT]
 - 그림자 선단은 국제사회의 주류 정유사·보험업계와는 거래하지 않고, 오히려 국제 제재 대상국인 러시아·이란·베네수엘라 등과 거래하는 유조선들로 최근 그 규모가 증가해 해운업계가 '주류'와 '그림자 선단'으로 양분
 - 보험을 이용하지 않는 그림자 선단은 가격이 저렴한 중고 유조선을 활용해 위험부담을 줄이고 있음. 최근 중고 유조선 거래 가격 급등과 중고 유조선의 활발한 거래 역시 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임
 - * 한 국제 조선업계 브로커는 "15년 된 중고 선박의 가격이 최근 6개월 만에 36% 상승했다"고 밝힘 [WSJ]

■ OPEC+, 하루 200만 배럴 감산 유지

- 사우디·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협의체 'OPEC+'는 12.4일 정례회의 후 '日 200만 배럴 감산 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향후 수급 균형과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즉각 대응에 나설 것'이라 발표
 - OPEC+는 지난 10월 정례회의에서 11월부터 일일 원유 생산량을 200만 배럴 감축하고 이를 내년 말까지 유지하는 데 합의. 이에 서방은 러시아에 협력한 것이라며 비판했으나 OPEC+는 기존 방침 지속 결정
 - 12.5일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시행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가능성 및 中 시진핑 주석의 12.8일 사우디 방문 일정을 고려해 갑작스러운 '주말 회의'가 열렸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OPEC+는 '필요한 결정'임을 강조하며 지속될 수 있는 에너지 시장 혼란을 고려해 기존 정책 고수를 결정했다고 평가 [WSJ]



GVC 뉴스더하기 ② :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이 올해 12.1일 발효되고,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 내년 1.1일 발효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 보도자료 및 상세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확인 가능

■ 한-캄보디아 FTA

- **(캄보디아)** 메콩강 유역 공급망 중심지로 높은 경제성장률, 젊은 노동력* 등을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음
 - * 지난 10년간 연 7% 이상 경제성장을 기록(단, '20년은 코로나로 -2% 성장), 35세 이하 인구가 약 65%
- **(FTA)** 양국 관계 재수교 25주년을 맞는 **올해 12.1일 발효**('20.7월 협상 개시, '21.2월 최종 타결)
 - * 아세안 국가와의 세 번째 양자 FTA(한-싱가포르 FTA: '06.3월 발효, 한-베트남 FTA: '15.12월 발효)

〈한-캄보디아 FTA 주요 내용〉

- **전체 품목 중 한국은 95.6%, 캄보디아는 93.8%의 관세 철폐**(수입액 기준 韓 95.7%, 캄 72.2%), 캄보디아의 상품 시장 추가 개방(한-아세안 FTA 대비 품목수 기준 17.1%p, 수입액 기준 43.2%p)
 - △ 한국 주력 수출품목인 화물자동차(관세율 15%)*, 승용차(35%), 건설 중장비(15%), △신선 과일(7%) 및 소주(15%), 김(15%), △의류(5%) 등
 - * 덤프 화물차(8개), 청소 화물차(4개) 등 26개 품목으로 전체 對캄보디아 수출액 중 11% (63백만불) 차지
- 양국간 전자상거래, 농·임·수산업, 정보통신기술 등 **경제·기술협력의 토대 마련** 및 **팬데믹 발생시 상품·서비스·인력의 지속적 이동 보장에 합의**하여 글로벌 보건 위기 발생시 협력 유지 기반 확보
 - ☞ 올해 12.1일 발효 즉시 1년차 관세, 내년 1.1일부터 2년차 관세 철폐 적용으로 韓 수출기업 혜택 기대

■ 한-인도네시아 CEPA

- **(인도네시아)** 풍부한 광물자원(니켈·주석·금 등)을 보유한 **자원 부국**이자 **아세안 최대 시장**
 -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니켈의 세계 매장량의 1/5을 차지*하여 **전기차 분야 공급망 핵심 거점**으로 급부상
 - * 생산량('19) 80만톤(전세계 생산량의 29.6%), 확인매장량 21백만톤(전세계 매장량의 23.6%)
- **(CEPA)** 양국 수교 50주년이 되는 **내년 1.1일 발효 예정**('12.7월 협상 개시, '19.11월 타결)
 - *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FTA와 동일한 성격**으로, 당사국간 보다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상품·서비스교역의 자유화뿐만 아니라 투자경제협력 등 **경제 관련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의 협정**

〈한-인도네시아 CEPA 주요 내용〉

- **수입품목 중 한국은 95.5%, 인니는 93%의 관세 철폐**(수입액 기준 韓 97.3%, 인니 97%), 한-아세안 FTA 대비 인니측 시장개방 수준을 약 13% 제고
 - △ 철강제품(관세율 5~15%), 자동차부품 등, △기계부품(베어링(5%) 등), 정밀화학제품(5%), △섬유(의류(5%) 등)
- 온라인게임,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분야 신규 개방** 및 유통·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외국인 투자 지분제한 개선***
 - * (유통) 51%→67%, (건설 및 엔지니어링) 55%→67%(한-아세안 FTA 대비)
- 자동차·에너지·문화콘텐츠·보건 등 분야별 **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경제협력 챕터 및 이행약정)하였고, 한국의 경제개발경험을 공유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협력을 이루어 나갈 예정**

■ 기대효과

- **아세안 FTA 네트워크 강화**로 우리기업들의 아세안 시장 진출 및 수출 증대 등 **교역·투자 확대**
- 코로나 확산,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시장 진출 및 **공급망 다변화**에 기여
- 특히,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디지털, 핵심광물 공급망,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에 합의(「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22.11월)한 바, 양국간 **경제협력 더욱 확대** 기대

GVC 기초상식 : 전력도매가격(SMP)

◆ 최근 국제 연료 가격 급등에 따른 국내 전력도매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전력도매가격(SMP, 계통한계가격)에 대해 알아보자

■ 전력시장구조

- (전력공급구조)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전력거래소(이하 KPX)를 통해 전국의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모두 구매한 후 산업체, 가정 등의 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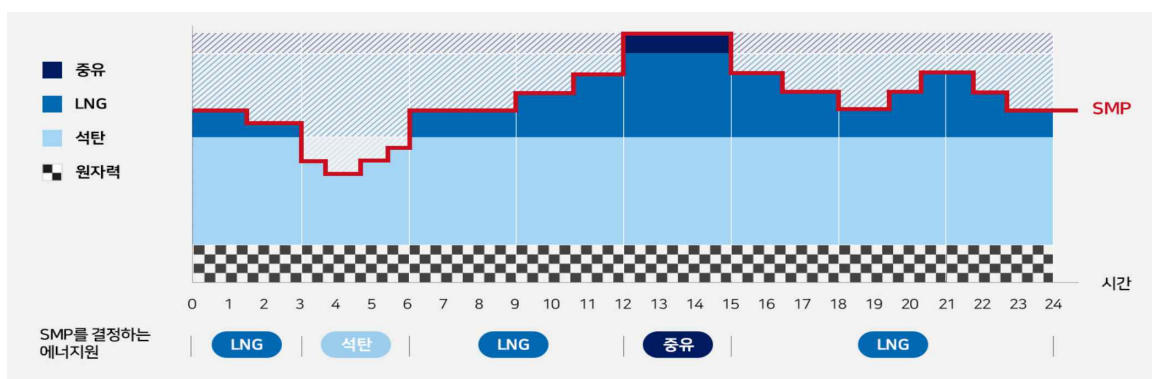


- (하루전시장) KPX는 다음 날에 필요한 전력량을 1시간 단위로 예측하여 발전회사들에게 다음날 발전가능한 전력량을 확인한 후 전력을 거래하는 시장 형태로 이를 하루전시장이라고도 함
- (급전지시) 당일 시간대별로 필요한 전력량(수요)과 발전가능량(공급)을 모니터링하면서 각 시간대마다 발전비용이 낮은 발전소부터 전력을 생산하도록 지시하는데 이를 '급전지시'라고 함

■ 전력도매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

- (정의) 한전이 발전사들에게 1kWh당 구매하는 전력가격을 전력도매가격(SMP, 계통한계가격)이라고 함
- (SMP결정) 발전비용이 낮은 발전소부터(원자력-석탄-LNG-중유) 예상수요전력을 순차적으로 생산했을 때 SMP는 해당 시간대에 발전하는 발전소의 발전비용 중 가장 비싼 발전비용 의미(하루 전 결정)

〈 SMP 결정 예시 〉



- ▶ 통상 원자력-석탄-천연가스(LNG)-중유 순으로 발전비용이 낮는데 평균적으로 대부분 LNG 발전소의 발전 비용이 SMP를 결정함. 아시아로 수입되는 LNG의 가격은 대부분 유가에 연동되어 책정되므로 SMP는 유가와 깊이 관련
- ▶ 전력수요가 적은 새벽시간(3시~6시)에는 석탄발전소의 발전비용, 전력수요가 많은 낮 시간(12시~15시)에는 중유 발전소의 발전비용으로 SMP가 결정됨

- (종류) SMP는 육지SMP와 제주SMP로 나뉘며 제주도의 전력생산 단가가 육지에 비해 높음

- 제주도는 1차적으로 육지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고, 남은 수요에 대해서만 제주도내 발전기로 충당하는데 육지는 대부분 저렴한 LNG 발전기를 활용하는 반면 제주도는 대부분 비싼 유류발전기를 활용하여 발전하여 단가가 높음



GVC 돋보기 :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주요 결과

◆ 이집트에서 개최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11월 20일 폐막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기금 설립에 합의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COP27의 주요 결과에 대해 알아보자

1. COP27 주요 성과와 한계

- **(성과)**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limature change conference Of Parties, COP)에서는 기후위기로 인한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는 기금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최종합의문인 **‘샤름 엘 셰이크 이행계획(Sharm El-Sheikh Implementation Plan)’**을 채택
 - 총회기간 동안 **‘적응’, ‘손실과 피해’** 등의 의제가 선진국과 개도국간 최대 쟁점으로 논의되었으며,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자원 마련 문제가 당사국총회 최초로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고, 치열한 협상 끝에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를 위한 **기금 설립에 합의**
 - 감축 작업 프로그램 운영, 전 지구적 적응 목표 달성을 위한 프레임워크 설치 등에 합의하여 지난 글래스고 기후합의(COP26) 보다 일정 부분 **진전된 결과 도출**
 - 감축 작업 프로그램(MWP) :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과 이행을 논의하기 위해 신설한 회의체(COP26, 글래스고)
 - 전 지구적 적응 목표(Global Goal on Adaptation) :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역량 및 복원력 강화 및 취약성 감소 목적으로 파리협정 제7조에 따라 수립
 -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 경로를 논의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작업 프로그램’을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제28차 총회부터 매년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고위 장관급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기로 합의
- **(한계)** 선진국 및 군소도서국 협상그룹(AOSIS)을 중심으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COP26에서 합의된 석탄 발전의 단계적 감축을 화석연료 전체로 확대하자는 요구가 있었으나 미반영

2. COP27 주요 결과 : 제27차 총회 대표결정문

◆ 당사국들은 이번 총회가 ‘이행’의 총회라는 점을 강조하며, 파리협정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감축·적응, 손실·피해, 자원, 기술지원 등이 파리협정의 주요 요소이며, 아울러 에너지, 해양, 산림, 농업 분야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비당사국 이해관계자 참여와 행동을 촉구

①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

- 감축 작업 프로그램(MWP)은 파리협정의 1.5℃ 달성을 위한 당사국의 감축 이행을 촉구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번 총회에서 감축 작업 프로그램 운영(안) 확정
 - **(운영 기간 및 방식)** '23년부터 '26년까지 운영하며 별도의 대화체 구성
 - * 개도국은 추가적인 감축 부담을 우려해 일시적 운영(1년) 주장, 선진국은 감축 상향을 위해 2030년까지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였지만 타협
 - **(논의 분야)** 부문 및 주제별 감축 방안*, 기술, 정의로운 전환 등
 -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온실가스 산정지침에 따른 부문과 제6차 평가보고서의 제3차 실무작업반 보고서(IPCC AR6 WG3)에 제시된 부문별 최저비용 감축 수단 등

②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

- 그간 관련 논의를 주도해왔던 **적응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도국의 요청으로, 전 지구적 적응 목표 달성을 위한 프레임워크 설립 합의**

- ‘글래스고-샤름엘셰이크 작업 프로그램(전 지구적 적응 진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 지표 등을 개발하는 2개년 작업, Glass)’을 통해 프레임워크 설립을 구체화하고 제28차 당사국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합의

③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자원 마련 문제가 유엔기후변화협약 채택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당사국총회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고, 제27차 총회 기간 동안 **핵심 의제로 논의**
 - **(개도국 의견)**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손실과 피해’ 대응을 전담하는 재정기구(financial facility)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
 - **(선진국 의견)** 새로운 기구 창설보다는 인도적 지원 등 손실과 피해 관련 자원의 확대와 녹색기후기금(GCF) 등 기존 기구의 기능 강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
- 최종적으로 개도국의 의견이 반영되어, 손실과 피해 복구를 위한 기금을 설립하고, 새로운 종합적인 관점에서 **기존의 손실과 피해 자원 지원 체계를 보완하기로 결정**
 - **(기금 및 지원체계의 운영방안)** 선진국-개도국 인사들로 구성된 준비위원회를 설립해서 기금의 제도적 장치 마련, 기존 자원 확장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내년까지 지속할 예정
- ‘손실과 피해’ 관련 기술지원 촉진을 위해 산티아고 네트워크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협상 진행
 - * 산티아고 네트워크 : 기후 취약국의 손실과 피해를 방지·최소화·해결을 위해 조직·기관·네트워크와 전문가들의 기술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년에 설립(COP25, 마드리드)
 - △사무국 설립 및 선정 절차, △자문기구 설립 및 멤버 구성, △네트워크의 상세 운영지침(TOR) 등에 합의, 네트워크 운영 및 기술지원을 위한 자원은 선진국에서 부담

④ 자원(Finance)

-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이 약속한 장기 자원 조성 목표 달성을 촉구하였고, 선진국들은 2025년까지 연간 1천억 달러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
 - 선진국은 개도국 지원을 위해 '20년까지 매년 1천억 달러를 조성하기로 COP16에서 합의한 바 있으며, COP21에서 이를 '25년까지 연장
 - OECD 측정 기후 자원 규모(억 달러): (16) 585 → (17) 716 → (18) 799 → (19) 804 → (20) 833
- '25년 이후의 신규 자원 조성목표는 올해부터 시작하는 기술전문가대화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결정
 - 기술전문가대화체 : 작년 COP26에서 당사국들은 '22~'24년 동안 매년 총 다섯 차례의 대화체(기술 전문가대화체 4회, 고위급 대화체 1회)를 통해 신규 자원 목표를 논의

⑤ 파리협정 제6조(국제탄소시장)

- 작년 총회(COP26)에서 마련된 파리협정 제6조(국제탄소시장)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기술지침 일부 채택
 - (제6.2조) 국가간 자발적 국제감축 협력사업 관련 국가 초기보고서 양식, 감축실적 등록시스템 개발 사항, 제6.2조 활동의 사후검토 지침(기술전문가 검토지침) 등 일부 확정
 - * 국가 초기보고서 : NDC 등 국가 수준의 정보와 개별 협력적 접근법의 환경건전성 및 예상 감축량 등에 대한 사업 정보를 담은 보고서로 ITMO 최초 허가 전에 UNFCCC에 제출
 - (제6.4조) 청정개발체제(CDM)의 사업기간은 최대 '25년 말까지로 한정하고, '21년 이전에 발급된 감축 실적(CER) 사용을 위한 서면 신청절차 등을 마련함. 다만, 제6.4조 메카니즘의 방법론 및 청정개발체제 전환지침은 차기회의에서 재논의

⑥ 기술지원(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

-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정책기구인 기술집행위원회(TEC)와 이행기구인 기후기술 센터네트워크(CTCN)의 공동업무계획(23~27) 확정



GVC 전문가: “한국무역 재도약(퀵텀점프)을 위한 차세대 성장 로드맵 구축”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강내영, 양지원, 안병선, 김문선, 편명선

- ◆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경제안보 움직임 강화 및 탄소중립·디지털 확산 등 산업·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주요 글로벌 산업 트렌드 변화와 우리의 대응 방향에 대해 살펴보자

■ 글로벌 산업 트렌드 변화

-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커진 ‘초(超)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한 가운데 세계 경제 전반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트렌드 변화로 ①그린, ②디지털, ③공급망 세 가지가 꼽힘
- ① (그린) 탄소중립·자원순환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저탄소 경제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어느 국가가 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sustainable competitiveness)을 확보하느냐가 관건
- ② (디지털) IoT, 클라우드, 데이터·AI 등 디지털 핵심기술을 가치사슬 전반에 접목하여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화함으로써 혁신을 이뤄낼 필요
- ③ (공급망) 보호무역주의와 가치사슬의 자국 내재화 등 효율보다 안정을 중시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뉴노멀’을 맞이하여 한발 앞선 글로벌 생산 전략의 수정이 요구

■ 우리나라 미래 유망 산업

- 글로벌 산업 트렌드 변화를 감안할 때 미래 한국무역을 이끌 7대 유망 성장동력산업으로 ①차세대 반도체, ②이차전지, ③바이오헬스, ④전기차, ⑤스마트그리드, ⑥우주, ⑦콘텐츠 등이 꼽힘
- 이러한 신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R&D 투자를 적극 지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인재 육성 및 해외 인재 유치에도 집중해야 할 것

〈7대 유망 신산업〉

유망 신산업	주요 특징
① 차세대반도체	산업과 경제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전통·미래산업을 아우르는 핵심 부품으로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② 이차전지	사물 배터리(Battery of Things, BOT) ¹⁾ 시대의 도래로 스마트기기, 전기차, 로봇, 가전 등 전 산업 분야에서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③ 바이오헬스	전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와 코로나19 등 신종질환 발생으로 건강증진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빠르게 성장할 전망
④ 전기차	탄소중립 계획에 따른 세계 각국의 배기가스 배출 규제, 친환경차 도입 지원책으로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
⑤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수요 증가, 자원고갈, 환경오염 등의 문제에 따라 ICT, 빅데이터 등 기술이 접목된 에너지 관리 시스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전망
⑥ 우주	항공, 물리, 수학, 화학, 전자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 기술집약 산업으로 기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의 영역으로 빠르게 발전
⑦ 콘텐츠	OTT 등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과 더불어 향후 구독경제, 메타버스 등과의 융합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엔터테인먼트/콘텐츠 산업이 급속히 발전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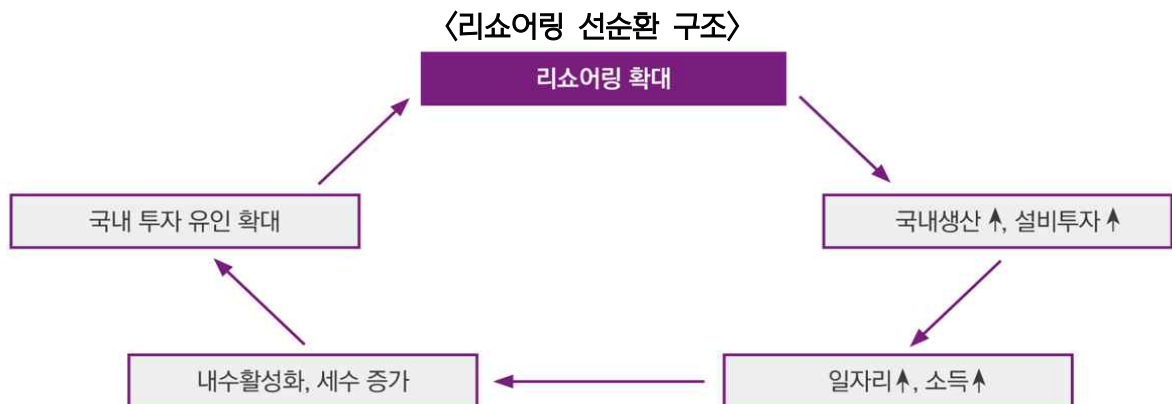
자료 : 저자 정리

■ 제조업의 서비스화

-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의 성장이 둔화하는 가운데 디지털 융복합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의 서비스화'** 역시 제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혁신이자 新 성장전략의 핵심으로 부상 중
- 이는 전체 제조 과정에 걸쳐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신규 서비스를 파생시킴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생산 효율성과 이윤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
- 우리 제조기업도 초개인화·자율화·구독경제 등에 발맞춰 가치사슬 단계별로 서비스화를 추진 중이나 주요 제조국(미국, 독일, 일본, 중국, 한국) 대비 여전히 제조 서비스화율이 가장 낮아 더욱 적극 대응할 필요
 - 제조업의 미래인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즈니스 매칭·테스트베드 활성화 ▲원천기술·솔루션 개발 지원, 국제표준화 참여 및 통계 인프라 정비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함

■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기술안보 강화

-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생산과 물류 차질에 따른 공급망 교란 속에서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의 뉴노멀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시도와 기술안보 강화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
- 미국, EU 등 주요국들은 공급망 교란 위험과 중국에 편중된 글로벌 공급망을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핵심 전략산업의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노력 중**
 - 각국이 경쟁적으로 자체 공급망 구축에 나설 경우 현재 생산효율에 기반하여 비교우위에 있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도전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의 자금률이 높아지면 우리 제품의 對中 수출이 위축될 우려
- GVC 재편의 흐름 속에서 중국, 대만, 아세안 등 역내(아시아권) 뿐 아니라 미국·독일 등 **선진 소비 시장 및 기술개발 거점국으로의 이전(니어쇼어링, Near-Shoring)**을 확대하고, 각국의 투자유치 정책의 수혜를 받기 위해 **경쟁국들보다 한발 앞선 전략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
 - 우리나라는 거대한 역내 시장을 보유한 미국, 독일 등과는 달리 내수시장 위주의 성장정책에 한계가 있으므로 글로벌 생산체제 유지가 불가피
 - 리쇼어링으로 인한 ①국내 생산 → ②수출 증가 및 수입 감소 → ③설비투자 및 소득 증대 → ④일자리 창출 및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작동



자료 : 저자 작성

1) 사물 배터리(BOT, Battery of Things) : 모든 사물이 배터리로 움직이고 연결되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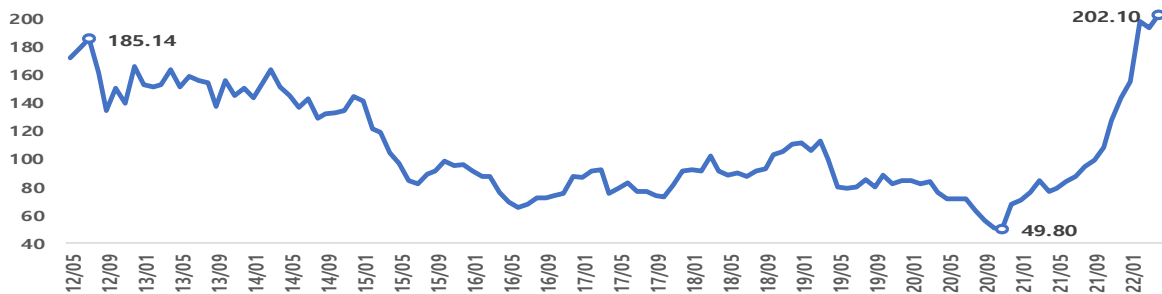
더 알아보기 :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 지난 12.1일부터 정부는 한국전력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가격인 전력시장가격(SMP)에 상한을 두는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SMP 상한제)를 도입하였다.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 도입 배경

- (현황) 최근 팬데믹 이후 수요 회복으로 수급이 불안한 가운데 러-우 전쟁으로 지난 5월 이후 국제 연료가격이 급등하여 국내 전력시장가격(SMP)이 상승하고 전기소비자들의 부담 증가
 - (유가, \$/bbl) : '22.5.20 108.07 ('21년 대비 56%↑, '20년 대비 156%↑)
 - (유연탄, \$/ton) : '22.5.20 436.07 ('21년 대비 214%↑, '20년 대비 622%↑)
 - (LNG, \$/mmbtu) : '22.5.20 21.93 ('21년 대비 18%↑, '20년 대비 398%↑)
 - (SMP) 거래시간별 수요·공급을 충족하는 가장 비싼 발전기(주로 LNG발전기)의 발전비용으로 SMP 결정 후 전체 발전기에 적용 → '01년 전력시장 개설 이후 **역대 최고인 200원대** 기록(22.4월 202.1원/kWh)
- (비용증가) 국제 연료가격이 상승하면 SMP도 상승하여 발전사업자들의 정산금도 증가하게 되며, 정산금은 한전이 부담하고 이를 전기요금으로 회수하는 구조이므로 정산금 증가는 **전기소비자 부담으로 귀결**

〈 최근 10년간 월평균 SMP 추이('12.5~'21.4, 단위 : 원/kWh) 〉



■ SMP 상한제도

- (개념) 전기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전력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구매하는 기준가격인 SMP에 상한을 두는 제도로, 국제 연료가격 급등 등에 따라 전력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의 정산가격 적용**

시행조건	■ 직전 3개월 SMP 평균이 최근 10년간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인 경우
상한수준	■ 직전 10년(120개월) 가중평균 SMP의 1.5배 수준
적용대상	■ SMP 기준으로 정산받는 100kW 이상 모든 발전기 *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100kW 미만은 제외
적용기간	■ '22.12월부터 3개월 시범 시행되며 3개월 초과 연속 시행 금지, 1년 후 일몰

- (법적근거) 전기사업법에 정부와 전기사업자 등이 전기소비자를 보호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구체화
 - 전기사업법 제4조(전기사용자의 보호) : 전기사업자와 전기신사업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전기사업법 제33조(전력거래의 가격 및 정산) 2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발전사업자 부담 완화) 실제 연료비가 상한가격보다 더 높은 발전사업자에게는 실제 연료비를 보상해주고, 그 외 용량요금과 기타 정산금은 제한없이 지급



GVC 소식통 ① : 공급망 관련 세미나 및 지원 사업 안내

■ 모잠비크 가스개발 프로젝트 웨비나

- 가스 산업과 관련된 우리 중소·중견기업에 모잠비크 경제 및 개발 정보를 제공하는 웨비나 개최

• 일시/장소 : 12월 13일(화)~14일(수) 15:00~17:00 / 온라인(ZOOM)

• 1일차 프로그램

시간	주제	발표	비고
10분	모잠비크 시장 및 진출 방안	KOTRA	한국어
10분	모잠비크 경제 현황 및 전망	Standard Bank	영어
20분	모잠비크 천연가스 개발 및 추진현황 소개	INP (모잠비크석유공사)	영어
10분	휴식		
30분	모잠비크 가스개발 주요 사업 소개	Project Owner	영어
30분	모잠비크 프로젝트 수주 사례	삼성중공업	한국어
Q&A			

• 2일차 프로그램

시간	주제	발표	비고
10분	모잠비크 투자 환경 소개	APIEX(수출투자청)	영어
10분	모잠비크 가스개발 진출을 위한 법적 절차	MRD(변호사)	영어
20분	모잠비크 천연가스 다운스트림 프로젝트	MIREME (광물자원에너지부)	영어
10분	휴식		
30분	모잠비크 발주처 벤더 등록 및 진출 방안	EPC 벤더	영어
30분	모잠비크 프로젝트 진출 사례(기회&리스크)	포스코건설	한국어
Q&A			

• 신청기한 : 12월 13일(화) 限

• 참가신청 : [모잠비크 가스개발 프로젝트 웨비나\(클릭\)](#) 내용 검토 후 하단 '신청하기' 클릭하여 신청

■ 2023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

- 해외 현지에 독자적 물류센터 구축이 어려운 우리 수출 중인 중소·중견기업 대상, 현지 KOTRA 협력 물류회사의 창고를 공동 이용하도록 하며 풀필먼트 및 수출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

• 참가비 매칭펀드로 지원(국고지원 비중 : 중소기업 70% · 중견기업 50%, VAT 포함)

중소기업	중견기업	한도 총액(A+B)
참가비(A) 30만원 ~ 600만원 국고지원(B) 70만원 ~ 1,400만원	참가비(A) 50만원 ~ 1,000만원 국고지원(B) 50만원 ~ 1,000만원	최소 100만원 ~ 최대 2000만원

* 1개사당 연간 최대 5개 무역관에 국고지원 신청 가능하며 한도 총액을 100만원 단위로 구분(신청 매뉴얼 참고)

• 신청기한 : 12월 14일(수) 18:00 限

• 참가신청 : [2023 해외공동물류센터 산업\(클릭\)](#)에서 내용 검토 후 '신청하기' 클릭 / ①(첨부)사업신청서(협력물류회사 제출용) ②중소/중견기업확인서 ③기업소개서 총 3개 파일 필수 첨부

• 선정기준 : 수출실적, 수출국 다변화 수준, 사업 활용 여부, 정책 우대, 제출서류 등 종합 검토

• 참고사항 : 참가비 연내 미소진 시 환불 불가 및 차년도 공동물류사업 참가에 불이익이 있으므로 '23.11.30까지 소진 가능한 금액을 선택하여 신청 요망

• 문의처 : KOTRA 유망기업팀 ☎ 02-3460-7923

[KOTRA]

■ [항공운송] 프랑크푸르트(독일), 도쿄(일본) 수출 중소기업 항공운송 지원사업 (KOTRA·대한항공)

- (사업개요) 항공운송 부족 애로 지속 → 수출 중소기업·중견기업을 위한 항공기 수출 스페이스 운송 증편(~2212월)
 < 항공 - 항차 정보 >

노선	출발예정일(매주)	예약마감일	서류/화물(입고)마감
인천(ICN) → 독일(FRA)	수요일	화요일 12:00	화요일 16:00 이전
	일요일	금요일 12:00	금요일 16:00 이전
인천(ICN) → 도쿄(NRT)	화요일	월요일 12:00	월요일 15:00 이전
	금요일	목요일 12:00	목요일 15:00 이전

- (상세내용) [KOTRA-대한항공 중소기업 항공운송 지원 안내\(클릭\)](#)를 통해 확인
 * 일반 화물 대상(냉장·냉동·위험물 등 특수화물 진행 불가)/ 전용 스페이스: 편당 3톤 내외
- (참가신청) [링크\(클릭\)](#) 또는 'KOTRA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물류/통관'을 통해 신청
- (문의처) KOTRA 「유망기업팀」 ☎ 02-3460-7436 / 항공물류수행사 ☎ 02-310-6554

■ [해상운송] 수출 중소기업 전용 선박 운송 지원 안내 (KOTRA·삼성SDS·CJ대한통운)

- (사업내용) 선복부족 애로사항이 지속 접수됨에 따라 기업이 기 확보한 정기선복의 일부를 국내 중소기업에게 제공하여 적기 수출 지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중견기업 및 KOTRA 회원사
- (신청기간) 추후 공시 시까지 수시 접수(접수 물량 초과될 경우 선착순 마감)
- (서비스 노선) 출항: 부산항 / 도착: 하단 참조


< 해상 - 출항 정보 >

운송지원사	구분	가용선복(TEU/Week)	주요기항지
CJ대한통운	일본	10	도쿄, 나고야, 오사카, 고베
	동호주	5	브리즈번, 시드니, 멜버른
	북미 서안	3	(서안) 엘에이, 롱비치, 시애틀, 타코마
	북미 동안	2	(동안) 뉴욕, 사바나, 노퍽
	중남미 서안	3	(서안) 만자날로
	중남미 동안	2	(동안) 산토스, 부에노스아이레스, 이타자이, 몬테비데오
	유럽	15	안트워프, 로테르담, 함부르크, 사우스햄튼, 그디니아, 르하브르
	서지중해	5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제노아
	동지중해	5	이스탄불, 이즈미트
	아프리카	5	더반, 뭄바사 ▶서아프리카 제외
삼성 SDS	중동	7	제벨알리, 담만, 소하르
	서남아	8	나바세바, 첸나이, 카투팔리 ▶방글라데시 제외
	북미 서안	40	LA, 롱비치, 오클랜드, 시애틀, 밴쿠버
	북미 동안	10	뉴욕, 사바나
	북유럽	20	로테르담, 함부르크, 앤트워프
	지중해	10	제노아,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포스
	남미 동안	20	산토스, 이타자이, 부에노스아이레스, 몬테비데오
아시아	20	호치민, 방콕, 람차방, 포트켈랑, 하이퐁(추가)	

- (상세내용) [CJ대한통운 중소기업 전용선복 지원안내\(클릭\)](#) 또는 [삼성SDS 중소기업 전용선복 지원안내\(클릭\)](#)을 통해 확인
- (참가신청) ① CJ대한통운: [링크\(클릭\)](#) / 'KOTRA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물류/통관'을 통해 신청
 ② 삼성SDS: [링크\(클릭\)](#) / 'KOTRA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물류/통관'을 통해 신청
- (문의처) KOTRA 「유망기업팀」 ☎ 02-3460-7436

[한국무역협회]

■ 중소기업 물류 지원 사업

기업명	지원 내용	신청 방법													
[해상운송]															
 (포스코)	[중소기업 화물 합적·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 대상: 벌크화물 수출 중소기업(철강 제품) or 포워드 가능 품목: 코일·판재류·선재 등 (이외 품목은 추가 확인 필요) 출항지: 포항항/광양항 → 도착지: 세계 주요 80개 항만 (내륙운임은 수출기업 부담) 	포스코 수출 물류 합적 플랫폼 가입 후 합적 신청 사업안내 (클릭)													
	[자동차운반선(RORO) 활용 중소기업 화물 합적·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 대상: Breakbulk 화물 수출 중소기업 or 포워드 출항지: 광양항/마산항/평택항 → 도착지: 미주·유럽·남미 주요 항만 ※ 운송신청 화물에 대한 현대글로벌비스의 추가 확인 후 합적·운송 시행 ※ 신청 화물에 대한 선적 확정 시, 출항·선적 일정 개별 공지 	신청서 작성/제출 (logistics01@kita.or.kr) 사업안내 (클릭)													
 (고려해운)	[인트라 아시아 중소화주 수출선박 제공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 대상: 선적 희망일로부터 22일 이상 여유 있는 수출 중소기업 (포워드 신청 불가) 가능 품목: 일반 FCL 컨테이너화물 (LCL 불가) 출항지: 부산항 → 도착지: 인도, 말레이시아/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사업안내에서 희망 국가 클릭 후 사업 신청 사업안내 (클릭)													
[항공운송]															
 (대한항공)	[중소 수출기업 전용 스페이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 대상: 수출 중소제조업체 (포워드 신청 불가) 가능 품목: 일반 항공화물 (특수화물 불가) 	온라인 신청서 제출 사업안내(클릭)													
	<table border="1"> <thead> <tr> <th>노선</th> <th>출항일</th> <th>예약 마감</th> <th>서류/화물 (입고) 마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인천 → 로스앤젤레스</td> <td>수요일</td> <td>월요일 12:00</td> <td>화요일 12:00 이전</td> </tr> <tr> <td>일요일</td> <td>목요일 12:00</td> <td>금요일 12:00 이전</td> </tr> </tbody> </table>		노선	출항일	예약 마감	서류/화물 (입고) 마감	인천 → 로스앤젤레스	수요일	월요일 12:00	화요일 12:00 이전	일요일	목요일 12:00	금요일 12:00 이전		
노선	출항일	예약 마감	서류/화물 (입고) 마감												
인천 → 로스앤젤레스	수요일	월요일 12:00	화요일 12:00 이전												
	일요일	목요일 12:00	금요일 12:00 이전												
[복합운송]															
 (LX판토스)	[유럽·러시아항 해상·철도 복합운송 선복지원 및 운임 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12월 유럽·러시아항 추가 운임 할인 지원 대상: 국내 수출기업(실화주) (포워드 신청 불가) 가능 품목: 20피트·40피트 드라이 컨테이너 (LCL 불가, TCR은 40ft만 가능) 	(운임 할인 및 지원 사업) 사업안내 (클릭)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3">해상+철도 복합운송</th> <th>내륙 운송</th> </tr> <tr> <th>노선</th> <th>출발지</th> <th>도착지</th> <th>최종도착지</th> </tr> </thead> <tbody> <tr> <td>TCR</td> <td>인천, 평택</td> <td rowspan="2">폴란드 말라세비치</td> <td rowspan="2">유럽 전역</td> </tr> <tr> <td>TSR</td> <td>부산</td> </tr> </tbody> </table>	해상+철도 복합운송			내륙 운송	노선	출발지	도착지	최종도착지	TCR	인천, 평택	폴란드 말라세비치	유럽 전역	TSR	부산
해상+철도 복합운송			내륙 운송												
노선	출발지	도착지	최종도착지												
TCR	인천, 평택	폴란드 말라세비치	유럽 전역												
TSR	부산														
[물류 보관]															
 (칼트로시스)	[부산신항 물류센터 컨테이너화물 보관장소 제공 및 요금 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내용: 물류센터 상하차 및 보관, 물류센터-CY 터미널 셔틀 할인가 제공 가능 품목: 일반 드라이 컨테이너 대상 (특수 컨테이너 문의 필요) ※ 수출업체→물류센터 운송 불포함 (수출업체가 포워드/운송사 통해 직접 수배) 	신청서 작성/제출 (hjo117@kita.net) 사업안내 (클릭)													

-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화물예약데스크」 ☎ 02-6000-7617 / 5754 (월-금 09:00~18:00)
 ✉ logistics01@kita.or.kr / hjo117@kita.net

【참고】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소개 및 활용 방법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VC)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회, KOTRA 등을 중심*으로 '22.2.9일 출범 ⇨ 산업·통상·에너지 등 주요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대한 상시전문적 분석 지원

* 종합전략실(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분석실(무역협회), 공급망모니터링실(KOTRA) 등으로 구성(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가상의 조직)

- ① 정부 부처, KOTRA 무역관, 업종별 협회 및 주요기업 등에서 수집된 국내외 공급망 동향 심층 분석
- ② 글로벌 공급망 관련 이상징후 신속 파악, 전파 및 대응조치 등 제언
- ③ 정부와 민간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전략 수립 지원

◆ 글로벌 공급망 네트워크

- 산업, 무역·통상,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협단체·연구기관 등 현장 중심의 민·관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글로벌 공급망 유관기관 협력회의’를 개최(22.3.21)하여 협력기관 확대(기존 12개 → 약 30개)

	개편 前(12개)	개편 後(29개)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수급대응 지원센터 (2)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수급대응 지원센터 (2)
산업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6)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전지산업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16)
무역 통상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3)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수입협회 (4)
에너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3)
연구 기관	국제무역통상연구원 (1)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4)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활용 방법 (종합 문의 : gvc_research@kita.or.kr)

- (구독 문의)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대외발간물) 매주 1회(목요일) 발간 中 (3.3일~)
 - 산업통상자원부(정책·정보·간행물), 한국무역협회(분석센터), 코트라(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한국무역협회와 KOTRA가 뉴스레터로 메일 송부(SNS로 쉽게 전파·확산이 가능한 PDF로 배포)
 - ☞ 메일 구독(수신) 신청 :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 카카오톡 > 오픈채팅방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검색 > 프로필 설정 > 대화방 참여
 -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 <https://open.kakao.com/o/gmGL3Obe>
- (품목 문의) 공급망 분석 필요 품목에 대한 문의·제안 → 중요성·파급력 등 검토하여 분석대상 선정
- (필자 참여) 본인의 지식·경험을 활용하여 필자로 참여 가능 (단순 정보제공 형태로 참여도 가능)

글로벌 경제지표('22. 12. 7. 수)

[환율]

	'20.12.31	'21.12.31	'22.11.30	'22.12.2	'22.12.5	'22.12.6	전일비	21말비
₩/U\$	1,186.30	1,188.80	1,318.80	1,299.90	1,292.60	1,318.80	+2.03%	+10.94%
선물환(NDF,1월물)	1,186.30	1,190.00	1,320.10	1,300.20	1,293.20	1,318.80	+1.98%	+10.82%
₩/CNY	166.04	186.51	185.25	184.52	186.83	185.82	-0.54%	-0.37%
₩/Y100	1,051.19	1,032.48	952.61	962.60	960.40	961.08	+0.07%	-6.92%
Y/U\$	103.34	115.14	138.44	135.04	134.59	137.22	+1.95%	+19.18%
U\$/EUR	1,2279	1,1318	1,0345	1,0531	1,0573	1,0481	-0.87%	-7.40%
CNY/U\$	6.5305	6.3681	7.1427	7.0522	6.9522	6.9820	+0.43%	+9.64%

* '21년 평균 환율: (₩/U\$) 1144.6원, (₩/¥100) 1041.9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1년 최저(해당일)	'21.12.31	'22.12.5 (전일)	'22.12.6	'22.12.6			
					전일(12.5비)	'21년최저비	'21년말비	
원유(두바이)	50.05 (1.5일)	77.12	80.81	77.97	▼2.8 -3.5%	▲27.9 +55.8%	▲0.8 +1.1%	
철광석	87.27 (11.18일)	120.75	109.60	109.70	▲0.1 +0.1%	▲22.4 +25.7%	▼11.1 -9.2%	
비 철 금 속	구리	7,755.50 (2.2일)	9,692.00	8,440.00	8,355.50	▼84.5 -1.0%	▲600.0 +7.7%	▼1,336.5 -13.8%
	알루미늄	1,951.50 (1.19일)	2,806.00	2,485.00	2,461.00	▼24.0 -1.0%	▲509.5 +26.1%	▼345.0 -12.3%
	니켈	15,907.00 (3.9일)	20,925.00	28,365.00	28,250.00	▼115.0 -0.4%	▲12,343.0 +77.6%	▲7,325.0 +35.0%

[반도체]

	'20	'21	'22.9	'22.10	'22.11	12.1	12.2	12.5	12월(~5)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07	3.42	2.51	2.41	2.16	2.10	2.09	2.09	2.09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1.9%	+8.0%	-32.7%	-32.4%	-33.1%	-36.5%	-37.1%	-37.2%	-39.0%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5.71	7.45	6.57	6.57	6.53	6.51	6.51	6.51	6.52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7.0%	+32.8%	-5.4%	-9.6%	-11.2%	-11.7%	-11.7%	-11.7%	-12.6%

[SCFI(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21.12.31	'22.11.11	'22.11.18	'22.11.25	'22.12.2	'22.12.2	
						전주(11.25비)	'21년말비
운임지수	5046.66	1443.29	1306.84	1229.90	1171.36	-4.9%	-76.8%

[BDI(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21.12.24	'22.10.31	'22.11.30	'22.12.1	'22.12.2	'22.12.5	'22.12.5	
							전일(12.2)비	'21년말비
BDI	2217	1463	1355	1338	1324	1323	0.0%	-40.3%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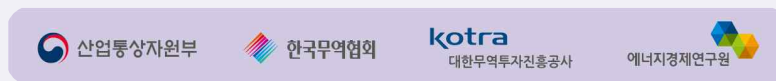
문의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 gvc_research@kita.or.kr
공급망모니터링실 (KOTRA) : gvc_monitoring@kotra.or.kr

※ 메일 구독(수신) 신청 :

하단 URL 또는 QR코드로 접속하여 신청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제작기관



협력기관

